

[25 (3월)교육청 2번]

1. 2. 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1)

진인(眞人)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다.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.

을: 현자(賢者)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.

- ① 갑: 만물 간에 우열이 없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없다.
- ② 갑: 예배(禮法)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.
- ③ 을: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.
- ④ 을: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⑤ 갑과 을: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.

[25년(5월)교육청 18번]

2. 18.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2)

갑: 생겨나면 죽지 않는 것은 없다. 중생의 죽음은 윤회(輪廻)하여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하여, 오온(五蘊)이 나누어져 흩어지는 것이다.

을: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.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, 죽으면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.

- ① 갑: 중생은 해탈하더라도 생사(生死)를 끊임없이 반복한다.
- ② 갑: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 내야 한다.
- ③ 을: 죽음은 고통을 유발하고 쾌락을 제거하므로 악한 것이다.
- ④ 을: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.
- ⑤ 갑과 을: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.

[26년(6월)평가원 16번]

3. 16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3)

갑: 누가 무(無)를 머리로 삼고, 삶을 등뼈로 삼으며, 죽음을 꿈무니로 삼을 수 있을까? 누가 삶과 죽음, 있음[存]과 없음[亡]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? 그런 사람이 있다면, 나는 그와 벗을 하고 싶다.

을: 애욕[欲]과 존재[有]와 무명(無明)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을 알고서 보니,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, 수행도 이미 이루어졌으며, 할 일도 이미 마쳐서,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.

- ① 갑: 죽음은 기(氣)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다.
- ② 갑: 삶과 죽음은 운명[命]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.
- ③ 을: 오온(五蘊)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.
- ④ 을: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 알게 된다.
- ⑤ 갑과 을: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[苦]이 아니다.★

[25년(7월)교육청 13번]

4. 13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4)

갑: 취착[取]을 인연(因緣)하여 존재[有]가 있게 되고,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[生]이 있게 된다.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, 병듦, 죽음, 근심, 슬픔, 괴로움, 번민이 있게 되어 이와 같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긴다.

을: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며,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.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. 진인(眞人)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,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.

- ① 갑: 삶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.
- ② 갑: 자신이 쌓은 업(業)과 무관하게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.
- ③ 을: 도(道)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.
- ④ 을: 자연적 본성을 극복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인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한다.★

[26 (9월) 평가원 12번]

5. 12.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5)

갑: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.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악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(禮)로써 정성스럽게 장사[葬]를 치러야 한다.

을: 어리석은 중생은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. 고로 큰 자비(慈悲)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구제하여 편안하게 해야 한다

- ① 갑: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.
- ② 갑: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 안 된다. ★
- ③ 을: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.
- ④ 을: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.
- ⑤ 갑과 을: 삶에 대한 애착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.

[25년(10월)교육청 9번]

6. 9.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6)

갑: 현자(賢者)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,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.

을: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인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.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, 확실하며, 견뎌질 수 없는 가능성이다.

- ① 갑: 죽음은 감각의 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다.
- ② 갑: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.
- ③ 을: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다.
- ④ 을: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비로소 실존을 회복한다.
- ⑤ 갑과 을: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.

[26년 수능 4번]

7. 4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7)[3점]

갑: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다 고통이다.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 나오려면 여덟 가지 바른 길[八正道]을 닦아야 한다.

을: 기(氣)는 모여 형체를 이루고 형체는 다시 생명을 이루지만 결국 흩어져 죽음으로 돌아간다. 이처럼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듯 끝없이 반복된다.

- ① 갑: 현세에 악업(惡業)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.
- ② 갑: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.
- ③ 을: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(仁義)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.
- ④ 을: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.
- ⑤ 갑과 을: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.

[26년 수능 6번]

8. 6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8)[3점]

○○에게

우리 학생들에게 만약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물을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. 남은 인생이 쾌적함보다 해악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,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하겠다는 원리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. 여기서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. 과연 이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?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?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, 견딜 수 없으면 인생을 버린다면, 견딜 만한 상태로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에게 말해 주세요.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사람.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,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

- ①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편적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.
- ②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.
- ③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.
- ④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.
- ⑤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이다.

[26 (3월)교육청 4번]

9.4.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9)

: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, 환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.

을:동의합니다. 다만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결정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.

갑:아닙니다.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살인과 같은 행위입니다.

을:그렇지 않습니다.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중단할 수 있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없는 안락사도 환자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므로 살인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.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는 안락사도 허용해야 합니다.

- ①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생명 단축 행위가 허용될 때가 있는가?
- ②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는 살인과 같은 행위인가?
- ③ 회생 불가능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?
-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안락사 결정 시 환자의 존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?
- 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은 안락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가?

[26년(3월)교육청 17번]

10. 17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10)

갑: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의 가능성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. 이는 그러한 앎이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.

을: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괴로움을 받게 된다. 중생들은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각자 지은 업(業)에 따른 결과를 다른 세계로 나아가 자신이 받게 된다.

- ① 갑: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유한성을 거부할 때 종식된다.
- ② 갑: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소멸하는 계기이다.
- ③ 을: 죽음의 고통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.
- ④ 을: 죽음의 고통은 자신의 업에 따라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.
- ⑤ 갑과 을: 죽음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죽음 자체는 고통이다.

1)

정답 4

출제 의도]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비교한다.

갑은 장자, 을은 에피쿠로스이다.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.

- ①
- ②
- ③
- ④
- ⑤ 에피쿠로스 x

2)

18. [] 죽음에 대한 석가모니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

정답 2

갑은 석가모니, 을은 에피쿠로스이다. 석가모니는 중생이 오온(五蘊)의 무상함을 깨닫고 해탈하게 되면,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.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상실되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.

3)

1. 죽음관에 대한 장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비교

정답 해설 : 갑은 장자, 을은 석가모니이다. ② 장자는 삶과 죽음은 운명[命]이므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. 정답 ②

[오답피하기]

- ①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(氣)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.
- ③ 석가모니는 오온(五蘊)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.
- ④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.
- ⑤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[苦]이라고 보았다.

4)

13. [출제의도] 석가모니와 장자의 죽음관 비교하기 정답 ③

갑은 석가모니, 을은 장자이다.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이 모두 고통이며, 자신이 쌓은 업(業)에 따라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았다.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으로 보면서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.

③을: 도(道)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.

⑤ 갑과 을: 인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삶과 죽음을 **분별**해야 한다.

☞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. [16년 수능 10번]

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	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가는 생과 사는 차별이 없으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. →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. ▪ 불교에서는 생사일여[生死一如] 즉 생과 사는 하나라는 의미로 생(生)하면 사(死)하고 사(死)하면 생(生)하므로 윤회의 과정에서 생은 서로 사는 생으로 연결된다. <u>그러므로 생과 사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불교는 생사를 윤회(순환)의 과정이라고 본다. ▪ 도가는 생사를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본다. <p>☞ ⑤번 선택지는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이 된다.</p>

5)

12. 죽음관에 대한 공자와 석가모니의 비교

정답 해설 : 갑은 공자, 을은 석가모니이다. 공자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. 정답 ①

[오답피하기] ② 공자는 “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?”라고 말하였다. 이는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이다. ③ 석가모니는 태어남이 있기에 죽음이 있으며,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고통일 뿐이라고 보았다. ④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굴레, 즉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았다. ⑤ 석가모니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음을 비롯한 고통이 생긴다고 보았다.

6)

9. [] 삶과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한다. [정답] ②

갑은 에피쿠로스, 을은 하이데거이다.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으로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.

7)

4. 죽음에 대한 불교와 도가의 입장 비교

정답 해설: 갑은 석가모니, 을은 장자이다.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 모두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.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. 정답 ⑤

[오답피하기]

- ① 석가모니는 현세에 악업을 쌓든 선업을 쌓든 깨달음에 이르지 않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고 보았다.
- ② 석가모니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은 열반에 이른 사람으로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.
- ③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.
- ④ 장자는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다.

8)

6. 자살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

정답 해설 :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. 칸트는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,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저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. 정답 ④ [오답피하기]

①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보편적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.

② 칸트는 자기 보존은 의무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보았다.

③ 칸트는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. 칸트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.

⑤ 칸트는 인간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이지만, 도덕 법칙의 수립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
9)

4. [출제의도]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다. [정답 ③]

같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, 이른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호자나 대리인의 결정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.

10)

17. [출제의도]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의 입장을 비교한다. [정답 ④]

같은 에피쿠로스, 이른 석가모니이다. 석가모니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.